

# 광주FC 골키퍼 교체 '약' 될까 '독' 될까

광주FC의 골키퍼가 '뜨거운 자리'가 됐다. 올 시즌 2부리그에서 승격에 도전하게 된 광주는 2022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 이정호 신임 사령탑을 앞세워 '승격 도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고 있다.

앞서 광주는 11년 차 베테랑 미드필더 문상운(30)과 자유계약약을 하고, 서울이랜드에 윤보상(28)을 내주고 김경민(30)을 영입하는 '골키퍼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또 임대를 통해 공격수 이진형(23)도 불러들였다.

10일에도 영입 소식이 전해졌다. 포항스틸러스로부터 골키퍼 이준(24)과 공격수 하승운(23)을 영입한 광주는 맞트레이드로 골키퍼 윤평국(29)을 이적시켰다.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광주는 골키퍼 자리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윤보상과 윤평국은 지난해 각각 22경기와 11경기에 나와 광주 골대를 지킨 골키퍼들이다. 33경기를 책임진 두 명의 골키퍼가 나란히 이적을 선택한 가운데 베테랑 골키퍼 이진형도 계약이 종료되면서 1~3번 골키퍼가 광주를 떠나게 됐다.

시즌 최후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신승훈이 유일하게 잔류했지만, 고교 2년 차 어린 선수다.

골키퍼는 단순히 골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제적인 수비를 조율하는 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다. 완전히 새로 골키퍼 포지션이 꾸려지게 되면서 광주에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이 쏠린다.

일단 지난 시즌 서울이랜드에서 34경기를 소화한 김경민을 중심으로 올 시즌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호 감독은 김경민과 함께 주전 골키퍼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경험 있는 자원을 추가로 영입

윤보상·윤평국 트레이드·이진형 계약 종료 ... 1~3번 모두 떠나  
서울이랜드 김경민·포항 이준 영입 ... 1명은 추가 영입할 계획  
골키퍼 포지션 완전한 새판짜기에 기대와 걱정의 시선 교차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골키퍼 이준(왼쪽)과 공격수 하승운을 영입했다. 골키퍼 윤평국이 포항 유니폼을 입는다. (광주FC 제공)

할 계획이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승훈과 이준은 젊음을 무기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전망이다.

한편 광주가 새로 영입한 하승운과 이준은 연세대에서 대학 무대를 누빈 선후배 사이로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2019년 포항에 입단한 연건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88cm·79kg의 이준은 동물적인 반사 신경과 1대1 방어, 공중볼 캐칭이 좋은 골키퍼다. 유연성과 민첩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수비조율로 실점을 막는 데 강점을 보인다.

지난 시즌 프로 입단 3년 만에 데뷔전에 나선 이준은 초반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팀의 2021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역할을 했다.

이준은 "상대팀으로 맞이했던 광주는 정말 조직적으로 탄탄했고 까다로웠다. 팀이 하나로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광주에서 생활이 나에게 큰 도전의 의미로 다가온다. 멋진 활약으로 팀에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77cm·74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하승운은 빠른 발을 이용한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를 보유한 측면 공격수다.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약할 수 있는 등 다재다능함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다.

2017 아디다스컵 U-20 축구대회, FIFA U-20 월드컵 등 연령별 대표팀에서 9경기를 소화한 하승운은 프로 데뷔시즌 포항에서 15경기 1도움을 올렸다. 이후 전남과 안양으로 임대를 떠나 좋은 활약을 하면서 통산 52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하승운에게 광주는 고향팀이기도 하다. 영등포공고 출신인 하승운은 광주남초에서 축구를 시작한 광주출신이다.

하승운은 "고향인 광주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 타 팀에 있으면서도 중계로 광주 경기를 찾아보고 광주에서 뛰는 걸 소원해왔다"며 "광주가 승격을 도전하고 있는 만큼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수비수 손호준 임대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수비수 손호준(20·사진)을 수원삼성에서 임대 영입했다.

2002년생인 손호준은 수원삼성 U-15 매탄중, U-18 매탄고를 거쳐 고3때인 2020년 수원과 준프로계약을 하며 프로팀 생활을 시작한 '특급 유망주'다.

2020년 프로팀 골업을 받은 손호준은 카타르에서 치른 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도 동행했고, 2021년 FA컵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U-14 대표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경험한 손호준은 2019 브라질 U-17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 전 경기에 나설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비수이지만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자원으로 공격 기량에도 적극적이다. 또 넓은 시야로 사이 공간 패스에 능하며, 박스 안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크로스가 강점이다.

전남은 기대주 손호준을 통해 우측 사이드백 자원을 보강하게 됐다.

손호준은 "전남이라는 강팀에 와서 기쁘다. K리그 1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빠진 토트넘 FA컵 4라운드 진출

다리 근육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30·토트넘)이 결국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경기에 결장한 가운데 팀은 3부리그 팀에 역전승을 거두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9일(현지시간) 열린 모어컴과의 2021-2022 FA컵 3라운드(64강)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8골 3도움 등 공식전 전체 9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최근 부상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전한 것이다.

손흥민은 6일 첼시와의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 1차전(토트넘 0-2 패)에 선발로 나서서 후반 34분까지 뛰 뒤 교체됐는데, 다음 날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했다고 콘테 감독은 밝혔다.

첼시전 당시 교체는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에 부상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콘테 감독은 1월 24일~2월 2일 예정된 A매치 기간까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3부리그 팀 모어컴을 안방에 불러들인 토트넘은 손흥민이 사복 차림으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3-1로 역전승, 4라운드에 올랐다.

황희찬(26)이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다쳐 지난해 말부터 결장 중인 울버햄프턴은 2부의 세필드 유나이티드를 3-0으로 제압, 4라운드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 이용대·안세영 등 스타 총출동 배드민턴코리아리그 13일 개막

이용대와 안세영 등 국내 배드민턴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회가 열린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오늘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화도체육문화센터에서 DB그룹이 후원하는 '2022 DB그룹 배드민턴 코리아리그'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총 16개 실업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이용대(34·요넥스)와 손완호(34·밀양시청)를 비롯해 현 국가대표 허광희(27·삼성생명), 공희용(26·전북은행), 정나은(22·화순군청), 안세영(20·삼성생명) 등이 출전한다.

남자팀 대진표는 고양시청과 광명시청·광주는 행·밀양시청·삼성생명·성남시청·요넥스·충주시청으로 이뤄졌고, 여자팀은 KGC인삼공사와 삼성생명·시흥시청·영동군청·전북은행·포천시청·화성시청·화순군청이 참여한다.

다음 달 9일까지 예선리그를 치른 뒤 10일부터 12일까지는 6강 플레이오프, 24일부터 26일까지는 챔피언결정전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배드민턴 예능 프로그램인 '라켓보이즈'에 출연한 장성규와 윤원민, 부승관, 김민기 등이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임성재 새해 첫 출발 '톱 10'

##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8위

### 퍼트 실수로 역전 놓쳐 ... 스미스 34언더파 우승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개막전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820만달러)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임성재는 10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4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24언더파 268타로 나흘 경기를 마친 임성재는 기대했던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새해 첫 대회를 톱10 입상으로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나흘 연속 60대 타수를 적어냈다.

전년 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는 이 대회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전한 임성재는 지난해 공동 5위에 이어 2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21만 7500달러의 적지 않은 상금도 받았다.

3라운드 18번 홀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공동 선두 그룹에 6타차 공동 4위로 올라섰던 임성재는 최종 라운드에서 날카로운 샷을 뽐내었지만, 퍼트가 전날 만큼 따라주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3라운드에서 그린 적중시 1.43개였던 퍼트가 이날은 1.86개까지 치솟았다. 그린까지 가는 동안 샷 실수도 나왔다. 다만 18번 홀(파5)에서 어프로치 샷 실수를 저지르고도 8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마무리가 깔끔했다.

임성재는 "초반에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해서 분위기를 못 탄 것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새해 첫 대회부터 톱10에 든 것은 만족한다"고 말했다.

3타를 줄인 김시우(27)는 공동 23위(17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경훈(31)은 33위(13언더파 279타)에 그쳤다. 이경훈은 이날 6타를 줄였지만 1, 2라운드에서 70대 타수를 적어낸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

우승 트로피는 4라운드 합계 34언더파 258타로 PGA 투어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운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차지했다.

PGA 투어 최다 언더파 종전 기록은 2003년 이 대회에서 에니 엘스(남아공)가 적어낸 31언더파였다. 세계랭킹 1위 람 스페인(스페인)을 1타 차이로 따돌린 스미스는 PGA 투어 통산 4승 고지에 올랐다.

/연합뉴스

임성재가 10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PGA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경기 최종 라운드 4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